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경흥스님



가을의 바람은 쓸쓸하기만 했을 뿐이었다. 한때 길가 보도블록 위에서 철모르고 나뒹구는 낙엽들을 치워버려야 겠다는 생각에 온몸으로 밀어붙여도 보았지만 급기야 힘에 겨워 더욱 흐뜨려 놓았을 뿐이다. 뭇 사람들의 발밑에 깔려 아우성하며 바스라져 가는 낙엽들을 볼 적마다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워 스치는 사람들의 외투깃을 실없이 세워주고, 흩날리는 머리칼의 향내만 좇다 이것이 낭만이라고 그저 자신을 위무해 버리곤 말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겨울의 바람은 매서웠다. 부딪치는 사람들의 지위고하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사정없이 귓볼을 후려쳐 움추려들게 하거나 양지쪽 한켠에 쪼르르 모여 숨어든 낙엽조각들과 생활의 파편들 마저 인정없이 휘몰아쳐 쓸어버리는 비정함을 가지고 있다. 만약 사람들의 마음에도 바람이라는 것이 있다면 전자는 일반 중생의 바람과 비슷할 것이요, 후자는 출가사문의 바람과 흡사할 것이리라.

마음은 항상 절에 있고 싶다고 해도 몸은 여전히 생활의 굴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저 신앙생활의 한 조각만을 움켜쥐고서도 만족해 하는 중생심의 마음이 가을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이 길이다 싶으면 우직하게 그대로 사정

누비옷 한 벌 사철 지내

불이익 감수하며 의지대로

없이 밀어붙이고 마는, 어쩌면 조그만 방일의 자비심조차 허용치 않는 출가사문의 마음이 겨울바람과 같으리라.

옛날 노스님들께서 가장 경계하며 가르치신 말씀중의 하나가 "출가의 인연이 지중하여 스님 몸 받기도 어렵지만 더욱 더 어려운 출가는 은사출가이니라"며 마음이 한곳에 놓여 버림을 경계하셨다. 모든 것을 떨치고 이미 출가하였지만 기실 승가에는 또 하나의 굴레가 씌워져 있는데 그것이 은사와 사형 사제 등으로 엮어진 문중의식이다. 작금의 교계가 안고 있는 큰 맹점중 하나가 문중이란 굴레속에 매여져 더 큰 출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두를 버리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당장 거처가 확실치 않아 여기저기 부대끼다 짐 하나 풀 곳 없이 운수행각을 해야만 한다. 물론 선방이나 기도스님처럼 일정기간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있겠지만 해제철 짐풀 곳 없이 헤매는 처지거나 그런 근기마저 없이 동가식서가숙 하는 경우에는 현실이 서글프게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문중의 출가가 그저 마음먹듯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내가 처음 봉은사에 방부 들였을 때 경흥스님은 전 소임자였었다. 사중의 분위기가 뒤숭숭하여 약간은 어색한 만남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산적같은 수염이 까칠하게 자라 텁수룩한 얼굴의 그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서울생활이 처음인 나를 이것저것 챙겨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흰 이빨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을 때적이 당황했었다. 곧고 무뚝뚝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언어 또한 매우 직설적이어서 여간해서 쉽게 어울릴 수 없을 것이란 선입견이 작용한 탓이리라. 어쩌다 한번씩 나누는 찻잔속에서 마치 오랜 도반처럼 신뢰가 쌓여갈 무렵, "왜 사시사철 흰 누비옷만 입고 다니냐?"는 나의 물음에 "중이 누비옷 한 벌이면 되지 뭘 더 바라겠냐"며 환히 웃어보이는 모습이 보기 좋았었다. 어느 밤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 경흥스님 친구라는 신부님 한 분이 찾아왔다. 밤늦도록 차를 마시며 개구쟁이 마냥 장난을 치며 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님과 신부님'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풍경속에서도 썩 잘 어울린다 라는 느낌을 가졌다.

원체 격이 없는 스님이었기에 인기가 좋았으며 누구와도 잘 어울렸다. 또 멋을 아는 스님이었기에 험한 그의 입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그러나 경흥스님에게는 진실로 맵고 날카로운



성품이 있다. 살없이 웃는 듯 하지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겨울 삭풍같은 매서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때 그 스님의 사형에게 일이 생겨 간곡한 부탁과 부름이 있었는데 결코 응하지 않고 겨울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던 날 짐 싸들고 바람처럼 떠나버렸던 적도 있다. 그 이후 사형스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철새처럼 떠들더니 지금은 어느 선방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에게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은사나 문중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일은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다.

모름지기 스님은 맺고 끊음이 분명한 자유로운 바람이어야 한다는 어느 선배스님의 말처럼 은사나 문중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감 또한 진정한 스님의 멋이 아니겠는가.

오늘처럼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면 경흥스님의 걸쭉한 입담과 차 한잔이 그리워 진다. 매서운 겨울 바람을 닮은 스님의 성품이 그리워서일까.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

해야 할 일 미루고

지난 일 되새기니

망상 속에서 허우적

지금 노력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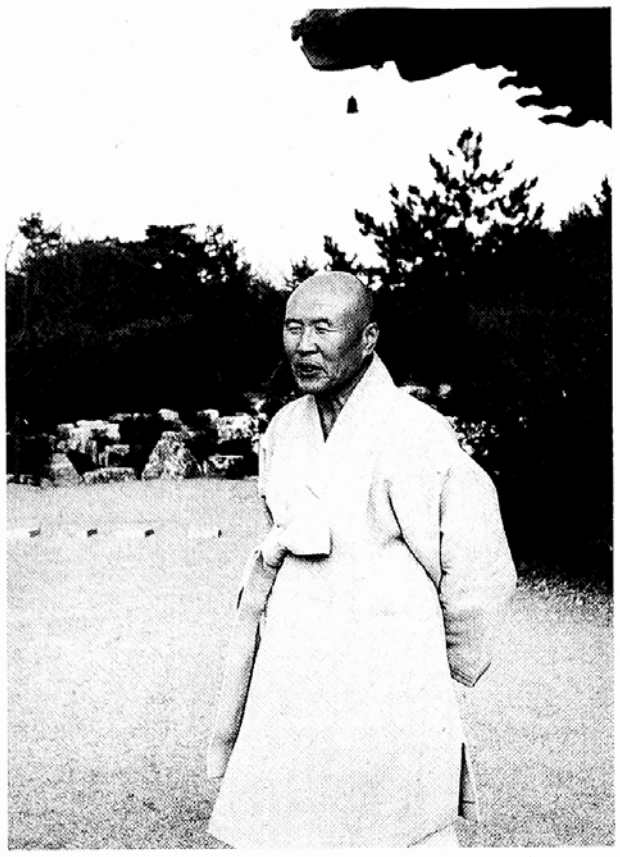
"

이 기운을 밝게 바르게 참되게 쓸 때에는 대 우주의 무한의 지혜와 복과 긍과 덕이 모두 나에게 오게 되어 있고 이것 잘못쓰면 이상한 결과가 내 발등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운을 부처라고 하고 그 기운이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을 하려고 해요. 물질계와 정신계가 분열이 되고 조각이 난 것 같지만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정신계를 무시하고 부정하려고 하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면 내 마음도 부정을 해야 하는데 내 마음은 부정할 길이 없죠. 일상 생활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눈꺼풀에 안 걸리는 마음이라는 그게 먼저 꿈틀거리고 움직인 다음에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지. 마음이라는 것이 꿈틀거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루어진 다음, 뒷꼬리만 자꾸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러지 그 원점인 마음 꿈틀거리는 것을 단속하고 다스리는 것은 소홀히 해요.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을 잡고 가지말고 원점을 잘 단속하고 다스려 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눈의 눈꺼풀에 비치지 않는 마음이라는 세계의 꿈틀거림, 움직일 그것이 복을 짓고 재앙을 만들고 고든 게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이 움직인 다음에 따라가는 몸뚱이나 행동은 뒷전이라는 걸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점이 꿈틀거리는 것을 단속하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든 단체든 내 개인부터 내 마음 꿈틀거리는 것 단속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사정도 어렵고 정치도 안정되지 못해서 사람들은 더욱 살기가 각박하다고들 합니다. 나라 안팎의 여러 난제들을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나부터 고쳐 나가야지요. 개개인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누가 하는 것을 기다려서는 안되고 남의 일 건너다보듯이 해서도 안됩니다. 건너다보지 말아라, 건너다보니까 속는다 이말입니다. 눈으로 저쪽을 건너다보니까 저쪽에 속고 귀로 들려오는 것에 속고 피부에 닿아 오는 것에 속는다 말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래요. 건너다보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모두 이러한 원인에서 출발합니다. 기업하는 이들도 그렇고 국가일 하는 이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게 건너다보면서 남탓만을 하면서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인식했다면 당장 고쳐야 합니다. 고통이 따르고 힘이 들어도 고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느냐 하면 그 대답은 당연히 나부터 입니다. 나부터 손을 대야 합니다. 괴롭고 아프더라도 나부터 손을 대어서 대수술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흔히 공(空)과 무(無)를 이야기합니다. 답답하거든 비워라, 놓아버려라 하고 많이 이야기 하지만 어떻게 하면 비워지고 놓아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비우거나 놓을려고 하면 내가 저지르지 않는 것은 내게 오지 않는다는 철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짜증을 부렸으니 짜증이 오는 것이고 내가 신경질을 내 보냈으니 신경질이 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은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 대우주의 법칙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우기 위해서나 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해요. 받아들인다는 말속에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거울이 물건 비추듯이 붉은 것이 오면 붉은 것대로 노란 것은 노란 것대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나갔으니 들어오게 되어 있고 들어온 것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살펴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나가려는 철저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우룡스님.

"뿌리지 않으면 내게 오지 않아요 결과에 순응하고 긍정적 사고를"

불교에서 공이나 무를 아주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콩 심는데 콩 나는 것, 이것이 공입니다. 공의 도리를 바르게 알면 현실을 회피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에 겪고 있는 고통이 내가 언젠가 저질러 놓았던 것이 다시 내게 온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더욱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대우주가 구성된 시간이 내가 태어난 시간하고 다르죠. 우리는 한 토막만 쳐다보는데 대우주의 섭리를 봤을 때는 몇 백번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대우주는 몇 억만년 가는데 기껏 해봐야 백년밖에 살지 않는 우리가 앞의 일 못 쳐다 봤다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었다 라고 가정할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부모, 옆사람에게 잘한 게 많은가 잘못이 많은가를 냉정하게 돌이켜 보아서 내 몸뚱이가 떨어질 때 잘 한 것과 잘못한 것을 따져서 남는 쪽이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가져가는 업이 됩니다. 잘못한 게 많으면 그만큼 빚덩어리가 많은 것이죠. 지금 이 몸을 받아 가지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도 없고 아픔을 준 적이 없으면 내 앞에 좋은 일만 와야 하는데 자꾸 고통이 온다면 지금 이 몸뚱이 생기기 이전의 빚덩이가 대우주의 전기처럼 기운이 쌓여 가지고 언제가 했던 것을 갚아내라고 청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원인을 만들때에 물질로 된 몸뚱이를 주춧돌로 해서 진리에 발을 맞추기보다는 욕심에다 맞추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몸뚱이가 괴롭더라도 진리에 맞추어서 바르게 참되게 옳게만 살아가야 하는데 욕심이라는데 눈이 어두워 진리와 정의를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되었든 벌레가 되었든 인간이 되었든 물질을 붙들고 늘어지면 욕심에 어두워져서 지금도 스위치가 욕심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스위치를 딴 데로 돌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돌리면 끊어지든지 바꿔지든지 할텐데 계속 스위치를 욕심에 두고 있으니 안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돌리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철두철미하게 내 잘못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음을 깊이 인식하고 내가 뿌린 것은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수용과 긍정이 필요합니다.

-생활 가운데 복을 짓고 불법의 깨달음을 실현시키는 길은 무엇인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눈뜸, 깨침은 여태까지는 착각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렸다 해도 바른 세계에 눈을 뜨면 그 바른 세계에서만 향상하므로 그 부수물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깨쳤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도인이 되도 안 닦은 일은 안 오고, 안 익힌 일은 안 오는 것이예요.

우리들은 무슨 일을 겪으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도 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 부정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도인은 내가 저질렀으니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받아들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예요. 그러니 도를 깨치면 안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 받는다는 것은 닥쳐오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다는 말이지 저질러 놓은 원인과 결과를 벗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새해에는 첫 대답을 "예"하는 마음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세요. "예"하는 대답 속에 안될 일도 되게 하는 대긍정의 작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긍정의 자세로 실천한다면 참다운 부처님제자로 한 해 밝고 바르게 잘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담=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